

기쁨과 희망의 해, 세계일류교육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2009년은 과거 어느 해 보다 힘들고 어려운 해였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의 도산으로 야기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중산층이 감소되고 빈곤층이 확대되었으며, 세계 최저 2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치권은 4대강 개발, 세종시 등 정치적 쟁점으로 중단 없는 힘겨투기를 하였으며, 학부들은 예나 지금이나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늘어난 가는 사교육비에 고통의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2010년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불을 넘어 3만불의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임중근 서울 강남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달려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벌·학력주의를 시급히 능력주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체의 고용 및 승진 구조 개선, 특목고 및 대학 입학전형 개선, 고교와 대학 특성화 및 다양화, 공교육의 정체성 확립 등 총체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임시위주의 지식·기능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

학습부진학생이나 교육소의 계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교육 대상자,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자녀, 정규학교 이탈학생 등은 사랑과 정성으로 배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은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등 수월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주입

식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탐구·실험중심 교육,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및 창의성 개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역대정부와 달리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 패러다임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대학입학사정관제, 고교운영체제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 그러한 정책이다.

2010년은 정부의 핵심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백호가 힘차게 도약하듯, 우리교육이 세계일류교육으로 발전하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호랑이굴로 간다는 결심으로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자”

역학(易學)에서는 10년 단위로 대운(大運)이 바뀐다고 이야기 한다.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호랑이(庚寅)가 여는 밀레니엄의 두 번째 대운은 우리에게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교육계에 변화와 경쟁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지난 세기 말에도 여전히 높았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대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산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교육에서 거두는 수입이 국민총생산(GN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학생들이 이를 나라의 국부(國富)를 늘려주고 있는 셈이다.

학교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교는 미국과 영국보다 국가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명문대학 캠퍼스를 거니는 외국 유학생들은 더 이상 신기한 풍경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지역 사회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어떤 동네에 얼마나 유명한 학교가 있는지에 따라, 주민의 구성까지도 바뀌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저마다 손을 걷어붙이고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는 학교끼리, 지역끼리, 나라끼리 여러 차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육 경쟁력’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때도 없었다. 그렇다 면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의 유일성이다. 대량생산에서 고급화, 특성화로



김병민 서울 중등교육청 교장

나간다.

이 점에서는 교육도 다르지 않다. 20세기 교육은 평균적인 시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양성하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성과는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人材像)을 담아야 한다.

창의성과 개성은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따라서 좋은 학교, 우수한 교육이란 창의성과 독창성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둘째, 인성과 가치관 교육은 21세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몫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의 로드맵(road map)을 그려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남학생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이십대 후반에 취직해서 이순(耳順) 즈음까지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하게 학업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러던 인생의 진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떠오르는 유망직종들도 불과 몇 년 못 되어 새로운 기술 앞에 스러져간 한다. 교육과정을 알차게 짜서 성실

하게 운영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미래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겠는가?

답은 인성과 가치관 교육에 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실’, ‘근면’, ‘정직’ 같은 덕목(德目)은 변하지 않는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정직하고 성실한 인제가 대접받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아무리 반짝이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인품이 성마르고 약속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을 인재로 여기지 않는다.

학교 교육의 가장 큰 기둥인 가치관 교육에 더욱더 매진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학교는 인성을 기르고 가치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가 여는 경인년 새해에 이 말은 우리 교육에 깊은 가르침을 던져준다. 경쟁과 변화의 바람은 새해 벽두부터 강하게 불어치고 있다.

학교는 시대 요구에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전(應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은 우려만큼 낮지 않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마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며 부러워하곤 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교육열을 21세기에 교육 아젠다를 여는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안정적인 인성이 화두인 시대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교육계도 이에 걸맞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한다. 경쟁과 변화가 예상되는 경인년 새해, 우리가 가슴 깊이 품어야 할 격언(格言)이라 하겠다.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긴 하지만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경인년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다로 향한 차량들로 주요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31일 새해를 맞아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안과 남해안 등으로 34만대의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 나갔다고 한다.

열차와 항공편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도시를 빠져 나갔다.

새해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란 다.

아마도 막연하게 해돋이를 보기 위함보다는 새해의 소원을 한 가지 이상은 갖고 해를 보며 복을 빌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지만 결혼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도 소원을 빌었을 것이 틀림없다.

한국 사람같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투자와 열정이 많은 민족은 없을 것이다.

자녀 하면 곧 교육과 직결된다. 그러한 교육의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한 것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수시로 변하는 대학입시제도는 학부모와 당사자인 학생, 학교를 당혹케 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의 입학과 졸업은 곧 개인의 신분의 상승과 직결되어 늘 초미의 관심사였다.

일류 대학의 입학은 출세의 보좌와 연결되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회의 낙오자로 실패자로살



김청국 수원 청명고등학교 교장

수 밖에 없는 한국의 풍토가 서글프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승자가 되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내하며 사교육을 시키고 사교육기관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학원 속에는 열심히 하고 학교 속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급부로 공교육이 지탄을 받고 불매를 맞기도 한다.

사실 공교육을 살리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제 되어야 한다. 학급당 정원을 줄인다거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시키거나 교사의 수준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지원을 하여 공부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교실의 형태와 턱없이 모자란 특별교실, 풍나물교실과 같은 수업 분위기, 하향 평준화된 대도시 학생의 학력격차... 이러한 현실에서 아무리 유능한 교사도 완전학습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

다 달라지는 대학입시의 변화는 곧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할지 모르는 막대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결국 돈 있는 학생은 고액외의를 해서라도 성적을 올려 일류대학에 가고 돈 없는 학생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포기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은 일선 학교에서 흔히 겪게 되는 현상이다.

대학입시의 다양화는 학생 개인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지도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고다양한 입시정보 또한 학교가 모두 알고 적용하기가 어려워 어떤 경우는 학부모가 진학의 전문적인 길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주객의 전도라고 해야 할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어색한 모습들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내 자녀만을 위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를 위한 열정이다.

부모님의 열성이 지나친 나머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학교를 불신임하고 때론 이로 인해 학교가 혼란에 빠지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학부모가 고학력일수록, 문화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하고 거세다.

교육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등 정도를 넘어선 심한 간섭을 비롯 책하고 나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를 불신임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3년간 배운 것은 하나도 없고 학원에서 배워 온 막대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지역 사회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어떤 동네에 얼마나 유명한 학교가 있는지에 따라, 주민의 구성까지도 바뀌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저마다 손을 걷어붙이고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는 학교끼리, 지역끼리, 나라끼리 여러 차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육 경쟁력’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때도 없었다. 그렇다 면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의 유일성이다. 대량생산에서 고급화, 특성화로

나간다. 이 점에서는 교육도 다르지 않다. 20세기 교육은 평균적인 시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양성하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성과는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人材像)을 담아야 한다.

창의성과 개성은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따라서 좋은 학교, 우수한 교육이란 창의성과 독창성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둘째, 인성과 가치관 교육은 21세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몫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의 로드맵(road map)을 그려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남학생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이십대 후반에 취직해서 이순(耳順) 즈음까지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하게 학업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러던 인생의 진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떠오르는 유망직종들도 불과 몇 년 못 되어 새로운 기술 앞에 스러져간 한다. 교육과정을 알차게 짜서 성실

좋은 만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백호의 희망찬 새해에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앞날의 세상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정보화능력을 갖춘 자가 성공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다움이 더해져야 완전한 인간, 미래의 인간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가까이 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을 책과 함께 하며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인태호 인천 신촌중등학교 교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큰 준비를 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불평, 불만을 말하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세상이 살아간다면 그는 틀림 없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

니다. 감사하는에서 사람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사랑입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이 곧 인생이고 순간이 이어져 영원이 됩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이 모두가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교직생활을 마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성공한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모두가 처음의 각오를 잊지 않

고 공부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나라의 기둥으로 훌륭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도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남은 교육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가족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을 만남, 좋은 친구를 만남, 좋은 책을 만나서 읽는 것 등... 그 만남이 훌륭한 것이라면 한 사람을 천사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라는 대중가요도 있지만 사람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상하라! 그대들의 어깨 위에 우리 미래가 있다

Launch yourselves into the world! Our future rests on your shoulders.

I. 새해를 맞이하며...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설레는 희망과 기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계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희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멋지게 그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특히 범민 해인 올해 호랑이의 기상과 용맹함이 도전·창조·변화가 있는 희망찬 계남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확신합니다.

II. 겨울방학 - 비상을 위한 준비의 시간...

벌써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은 1학년에게는 이제 어엿한 중학생으로서 2학년에게는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고, 각 교과목 선생님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많은 만큼, 스스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학은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고 의지를 재충전하고 꿈을 성



김광석 부천 계남중학교 교장

장시키는 발판이 되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방학을 맞이하는 계남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방학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방학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학교의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고, 각 교과목 선생님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스스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을 많이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고,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겨울 방학이 스스로에게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III.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고산증으로 괴로울 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힘들다, 괴롭다, 두렵다, 짜증난다’ 처럼 나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더 아파지지만, ‘괜찮다, 할 만하다, 잘할 수 있어’ 등 좋은 생각을 하면 한결 나아진다고 합니다.

모든일에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앞서가는, 실력있는’ Top Brand 명문고 桂南人들이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이며 좋은 생각으로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지에 신년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